



안타 58% UP, 타율 1위 이끈 대약진 4인방 KIA 2023 타선 더 강해진다

외야수 이창진·내야수 류지혁·박찬호·황대인 등 4명
471개 안타 생산...타선 강해져 팀타율 1위 결과물 나와

“나성범과 양현종만은 아니었다.” KIA 타이거즈는 2022시즌 5위를 했다. 2021시즌은 창단 처음으로 9위까지 추락했다. 맏 윌리엄스 감독은 2년 만에 경질됐고, 단장과 대표이사까지 교체되는 혼란을 치렀다. 그러거 2022시즌 5위로 점프해 자존심을 회복했다. 대대적인 투자덕택이었다.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종과 FA 타자 최대아 나성범을 동시에 영입했다. 시즌 도중에는 포수 박동원까지 트레이드로 수혈했다. 세 선수의 보강으로 전력에 급상승했다는 점은 분명했다. 그렇다고 이들만이 5위를 이끈 것은 아니었다. 타선에서는 몇몇 젊은 야수들의 대약진이 있었다. 외야수 이창진(31), 내야수 류지혁(28)과 박찬호(27), 황대인(26)들이 주인공들이다. 네 선수는 모두 100안타를 넘게 때리며 타선에 힘을 실었다.

박찬호의 타격능력은 일취월장했다. 만년 2할대 초반의 타격이 아니었다. 566타석 2할7푼1리, 4홈런, 45타점, 81득점, 장타율 3할4푼1리, 출루율 3할4푼4리를 기록했다. 커리어하이 기록이었다. 안정된 유격수 수비까지 이제는 1군 주전급 성적을 올리는 타자로 우뚝 섰다. 이창진은 규정타석에 약간 모자란 404타석을 소화하며 타율 3할1리를 기록했다. 104안타, 7홈런, 48타점, 56득점, 장타율 4할2리, 출루율 3할7푼4리의 수치를 남겼다.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성적이었다. 개막 당시는 경쟁대열에서 비껴있었지만 좌익수 주전으로 떠올랐다. 3루수 류지혁도 큰 성과를 올렸다. 프로 입단 11년만에 첫 규정타석에 진입했다. 477타석, 타율 2할7푼4리, 2홈런, 48타점, 55득점, 장타율 3할4푼6리, 출루율 3할6푼9리를 기록했다. 주전 3루수이자 1번타자로 활

약했고, 가끔 1루까지 커버하면서 주역으로 뛰었다. 황대인도 524타석에 들어가며 첫 규정타석을 이루었다. 타율은 2할5푼6리에 그쳤지만 14홈런, 91타점, 40득점, 장타율 4할1리, 출루율 3할1푼5리를 기록했다. 한때 4번타자로 나서기도 했고, 주전 1루수로 자리를 잡았다. 4명의 선수들은 작년 모두 298개의 안타를 쳤다. 그러나 올해는 471개의 안타를 생산했다. 4명 안타가 58%나 증가했다. 이들의 덕택에 그만큼 타선도 강해졌고, 팀타율 1위의 결과로 나왔다. 팀안타도 전년에 비해 13.6% 올랐다. 이들은 올해의 약진을 발판으로 나란히 3할 타율에 도전한다. 베테랑 3할타자 고종욱은 “올해 나성범과 양현종이 있어 5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에 찬호, 창진, 지혁, 대인까지 젊은 타자들까지 잘해서 5위가 된 것이다.이들과 (김) 도영이와 (김) 석환이도 힘을 보탠다면 내년에는 KIA 타선이 더 좋아질 것이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이슬비기자



박지원이 4일(현지시간) 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2-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남자 1500m 예선 경기를 펼치고 있다.

쇼트트랙 박지원, 2차 월드컵 1000m 금...女 계주 우승 여자 1500m 금메달 땀던 김길리 2관왕 등극...최민정, 500m 2차 레이스 은메달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박지원(서울시청)이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에서도 금빛 질주를 선보였다. 박지원은 7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1000m 결승에서 1분25초202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홍경환(고양시청)은 1분25초263으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 박지원과 홍경환은 레이스 초반부터 나란히 1, 2위로 나섰다. 7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홍경환이 잠시 선두를 빼앗았지만, 박지원은 곧바로 아웃코스 추월해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박지원은 이후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반 바퀴를 남기고 추월을 시도한 홍경환을 잘 견제하면서 선두를 지킨 박지원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월드컵 1차 대회에서 1500m, 혼성 2000m 계주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오른 박지원은 2차 대회에서도 금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김건희(단국대), 김길리(서현고), 서휘민(고

려대), 심석희(서울시청)로 이뤄진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04초016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날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땀 김길리는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여자 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42초384를 기록, 산드라 벨제부르(네덜란드·41초602)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전날 1500m에서 동메달을 수확한 최민정은 이번 대회 출전한 개인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수확했다. 최민정은 이번 대회 계주는 뛰지 않았다. 다만 1000m 2차 레이스 은메달만 땀던 월드컵 1차 대회에 이어 2연속 '노골드'에 그쳤다. 홍경환, 김태성(단국대), 임용진(고양시청), 박지원이 나선 남자 5000m 계주에서는 캐나다에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을 땀다. 한국 선수가 한 명도 결승에 오르지 못한 여자 1000m 결승에서는 최민정의 라이벌인 쉬저너 스틸링(네덜란드)이 1분28초241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뉴스

김민섭, 남자 접영 200m 한국신기록 갈아치워...‘1분55초95’

종전 한국기록 0.3초 앞당겨 김민섭(여수충무고)이 남자 접영 200m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김민섭은 6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 2023년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접영 200m 결승에서 1분55초95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는 문승우(전주시청)가 지난해 5월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한국기록(1분56초25)을 1년 6개월 만에 0.3초 앞당겼다. 함께 결승에서 레이스를 펼친 문승우는 1분56초39를 기록해 김민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 선수가 남자 접영 200m에서 1분55초대에 진입한 것은 김민섭이 최초다. 한 달 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분56초97을 기록해 0.04초 차이로 아쉽게 남자 고등부 우승을 놓친 김민섭은 “그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기록이었는데, 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아쉬웠다”며 “오늘 마음 편한히 최선을 다하는 생각으로 임했고,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일반부에서 형들과 같이 뛰게 되는데,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선우(강원도청)가 붙잡힌 남자 자유형 100m에서는 같은 팀 선배 양재훈이 49초28로



남자 접영 200m 한국신기록 작성한 김민섭. (사진 = 대한수영연맹 제공)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여자 평영 50m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만 7번 출전한 베테랑 백수연(제주시청)이 32초13으로 우승하며 견제함을 과시했다. 떠오르는 유망주 문수아(서울체중)는 32초

18초 2위에 자리했다. 대한수영연맹은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 종료 후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수영 국가대표 강화훈련 대상자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김현근기자

박은신, 골프존-도레이 오픈 우승...KPGA 통산 2승 2008년 데뷔 후 올해 5월 첫 우승 이어 2승째

박은신(32·하나금융그룹)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통산 2승 고지에 올랐다. 박은신은 6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에서 열린 골프존-도레이 오픈(총상금 7억원, 우승 상금 1억4000만원) 4라운드에서 5언더파를 쳐 최종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박은신은 이날 6번홀(파5) 샷이글을 포함해 버디 4개, 보기 1개를 기록했다. 이로써 박은신은 KPGA 코리아투어 통산 2승 고지에 올랐다. 2008년 KPGA 코리아투어에 데뷔한 박은신은 지난 5월 제12회 데상트 코리아 먼싱웨이 매치플레이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이번에도 또 우승했다. 스트로크 플레이 형식 대회에서의 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은신은 우승 후 “시즌 2승을 빨리 하고 싶었다. 시즌 2승을 거두면 앞으로 시즌 3승 이상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며 “올해 다승을 거둘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여유롭게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은신은 매치플레이에 이어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에서도 우승을 한 데 대해 “매치플레이에서는 승패가 나뉘지는 경기 방식이기에 긴장감이 크다.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은 전체적으로 마음 편하게 기다리며 여유있게 플레이



6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코스에서 열린 ‘골프존-도레이 오픈’ 경기, 박은신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KPGA 제공) 할 수 있다”며 “매치플레이에 이어 스트로크 플레이도 우승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신은 앞으로의 목표에 관해서는 “당장은 시즌 3승이 목표다. 내가 분위기를 타는 편이기에 다음주에 열리는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내년 목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동민이 16언더파로 1타 차 2위에 올랐다. 김영수와 한승수, 최진호, 황도연이 14언더파로 공동 3위다.

손흥민과 연락한 콘테 감독 “병원 아닌 집...월드컵 땀 것”

4일 수술 성공적으로 마친 뒤 회복 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수술을 마친 손흥민(30)의 소식을 전했다. 콘테 감독은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2-2023시즌 EPL 경기에서 1-2로 패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술 후 손흥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매우 실망했지만, 잘 회복해서 월드컵에 뛰길 바란다”고 말

했다. 이탈리아 대표 출신인 콘테 감독도 현역 시절 부상으로 큰 대회에 나서지 못한 경험이 있다. 유벤투스(이탈리아) 소속이던 1996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부상을 입어 같은 해 유러피언선수권대회(유로 1996)에 뛰지 못했다. 그는 “나도 선수였고, 월드컵의 중요성을 잘 안다”며 “오늘 손흥민이 그리웠다. 그가 빨리 돌아와 월드컵에 땀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지난 2일 마르세유(프랑스)와의 2022-2023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상대 선수인 찬셀 음벰바와 충돌한 뒤 쓰러져 전반 29분 교체됐다. 이후 검사 결과 왼쪽 눈 주위가 골절된 손흥민은 4일 수술을 잘 마쳤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5일 “손흥민의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며 “아직 월드컵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이르다. 대표팀 의무 스태프와 토트넘 측이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19세 신예 루네, 조코비치 꺾고 파리 마스터스 우승

2003년생의 신예 헬게르 루네(덴마크·18위)가 ‘백전노장’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7위)를 꺾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 단식 정상에 섰다. 루네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조코비치에 2-1(3-6 6-3 7-5)로 역전승을 거뒀다. 19세 6개월 7일에 우승한 루네는 1986년 18세 11개월 10일의 나이로 우승한 보리스 베커(독일) 이후 최연소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4대 메이저대회 바로 아래 등급인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루네는 이날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0위로 점프했다. 지난해 US오픈 단식 1회전에서 조코비치에 1-3(1-6 7-6(7-5) 2-6 1-6)으로 패배했던 루네는 실욕에 성공했다. 루네는 이번 대회 8강에서 2003년생 동갑내기이자 세계랭킹 1위인 카를로스 알카라스를 물리쳤고, 준결승에서는 최근 연승 행진을 벌이던 펠릭스 오제알리아시(캐나다·8위)를 잡으며 상승세를 뽐냈다. 뉴스